

처마 풍경에 새로운 햇살 깃드니 부처님 ‘자비 광명’ 빛난다



사람과 가장 가까운 모습의 원숭이의 해 병신년 새아침이 밝았다. 가능할 수 없는 시간 속에서 늘 우리는 원숭이보다 1분 1초가 고단하기만 하다. 미륵불 오시는 불국정토의 시간이 오기까지 56억 7천만년. 이미 오래전에 지나갔을 지도 모르는 그 만큼의 세월. 그 오랜 세월 중에 짧은 한 해를 또 맞는다. 저 남쪽 끝 부처님 도량 여수 향일암에도 또 새로운 햇살이 깃든다. 글·사진=김주일 기자

커버스토리

불교, ‘和諍’ 사회적 구현위해 뚝다

불교계가 2016년 ‘화쟁(和諍)사상’의 사회적 구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준비 중이다.

지난해 조계종 화쟁위원회(위원장 도법, 이하 화쟁위)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조계사 피신 사태 중재에 나서며 여론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특히 화쟁위는 한 위원장 퇴거 후에도 사회갈등요소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따라 화쟁 정신의 사회적 구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전망이다.

화쟁위는 2016년 핵심목표를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화쟁사상 보급과 확산’으로 삼고, △범종교·범시민사회계 연대 △화쟁전문가 양성 △갈등해결을 위한 화쟁프로그램 개발 등 계획하고 있다.

이와 같이 ‘화쟁(和諍)’이 사회갈등 해결을 위한 시대적 화두로 떠오르며, 화쟁위가 중재기구로서 어떤 차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종교의 사회적 역할과 방법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선

결되어야 하는 이유다.

화쟁적 중재 역량 강화책 모색

화쟁위는 올 한해 확고한 중재 패러다임을 구축할 예정이다. 한 위원장 사태를 중재하며 드러난 한계점을 보완해 대사회적 중재기구로서 역량을 갖추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화쟁위는 결과적으로 한 위원장 퇴거를 이끌어냈으나, 그 과정에서 조계사 공권력 침탈 위기를 맞는 등 총체적 난관에 봉착했다. 항간에 선 화쟁위 중재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던 주장도 있었다.

이에 화쟁위는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갈등해결 프로그램 개발 △화쟁사상 연구 심화 등에 주력하는 한편, 사회적으로는 △사회적대화모임 기구 창설 △국민평화화해선언문(가칭) 발표 등 추진할 예정이다.

이성구 화쟁위 기획위원은 “그동안 여러 사회적 현안을 화쟁 정신으로 해결하려 시도했으나 어려운 점

도 있었다”면서 “화쟁센터(가칭)를 개설하고 갈등해결프로그램 개발, 화쟁전문인력 육성 등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화쟁사상’ 정립을 위한 토론회(가칭) 등 개최하며 면밀한 연구도 실시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화쟁위는 최근 논란이 된 노동 관련 법,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등 사안들이 미래세대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국민적 공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노동 관련 법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모임에 대립 당사자인 노동계와 정부, 여당과 야당은 물론이고 청년층, 시민사회단체 등 여러 계층이 참여하는 원탁회의를 조성할 것”이라며 “노동법과 같은 사안을 두고 외국에선 10년 가까이 토론한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기구를 창설할 계획”이라 말했다.

이날 “노동관련법 관련 사회적 갈등해소를 위해 사회적 대화기구를 창설할 것”이라 밝힌 데 따른 것

이다. 이를 위해 화쟁위는 현재 한국노총, 민주노총, 정부여당, 새정치민주연합 등과 의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진실과 화해를 위한 사회적 대화모임과 함께 추진해 온 ‘국민평화화해선언문(가칭)’ 발표도 앞두고 있다. 이 위원장은 “정치적 이념에 따라 대립과 갈등이 심각하다”면서 “건강한 토론문화가 정립되지 못한 채 서로 낙인찍는 사태를 탈피하고자 진보·중도·보수 진영이 함께 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초안은 마련됐으나 발표 시기는 아직 미정”이라고 설명했다.

화쟁, 사회적 보급과 확산 위해

그렇다면 화쟁 정신이 사회에 구현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불교사회정책연구소장 법승 스님은 “사회문제에 대한 불교계 입장을 각성하지 못한 채 대립 당사자들에게 양보를 요청하고 합의를 이끌어내

는 것만이 ‘화쟁’이 아니다”며 “그것은 단지 갈등을 표면적·일시적으로 덮는 것에 불과하며, 기존 중재기구들과 다를 바 없다. 화쟁위만의 차별적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정길 지혜공유협동조합 이사장은 “화쟁은 누군가 이기고 지는 일을 거드는 게 아니다. 3차원적 시각서 문제를 인식하고 새로운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며 “초월적 해법 제시를 통해 모두 상생하는 과정을 창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밖에도 유 이사장은 “화쟁위는 대립 당사자 혹은 사회적인 중재요청이 있을 때 나서야 할 것”이라며 “원치 않는 데 중간자로 자임하는 것은 당사자들을 ‘극단적 주장자’로 인식하게 할 수 있다. 또한 당사자들이 화쟁과 해결의 주체라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중간자가 사회적으로 더 부각되거나 높이 평가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익률 기자 pak502482@hyunbul.com

불경서 最古 한글 필사 발견

동국대 불교학술원, 원각사 〈능엄경〉서 발견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한글필사본이 발견됐다. 훈민정음 초기 양식과 당시 경전 독해 방식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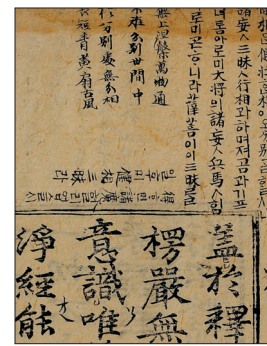
동국대 불교학술원 ABC사업단(단장 정승석)은 구랍 22일 한국기독교교육대 문리각 연구팀과 함께 경기도 고양 원각사(주지 정각)에 있던 〈능엄경(楞嚴經)〉 권1,2에서 1461년 이전에 쓴 것으로 추정되는 한글 필사 글씨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불교학술원은 지난 2014년 8월부터 고양 원각사에서 총 600여 건에 달하는 고문헌 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 중 〈능엄경〉 권1, 2에는 가장 오래된 한글이 필사돼 있으며 신라와 고려시대 석독구결을 잇는 석독(釋讀)의 표기가 들어 있는 사실도 확인됐다.

훈민정음 초기체 확인돼

주석·한문 어순 등 기록

1441년 〈언해〉보다 앞서



원각사 〈능엄경〉 내 한글 주석 부분. 훈민정음 초기 서체로 △(반치음) ○(옛이음) ㄷ(함용병서) 등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종이가 빼곡히 달려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글 글씨는 가느다란 붓을 이용해서 훈민정음 초기의 서체로 아름답게 써여 있으며, △(반치음) ○(옛이음) ㄷ(함용병서) 등이 사용되었음을 볼 수 있다.

경문과 요해에는 묵서로 쓴 구절을 한글로 달아 놓았고, 여백을 이용하여 경문이나 요해에 없는 주석을 한글 또는 한문으로 써 넣었다. 그리고 잘 못 쓴 부분에는 일일이 종이를 붙여 교정을 하였다. 경문이나 요해의 한글 부분, 그리고 주석의 한글 부분은 〈능엄경언해〉와 대체로 같지만, 〈능엄경언해〉에 없는 주석을 써 넣었다가 지운 부분이 있다.

한상길 불교학술원 ABC사업단 집행팀장은 “〈능엄경언해〉에는 언해로 된 주석이 한문이나 구결문으로 된 부분도 있어서, 1461년 〈능엄경언해〉보다 먼저 쓴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오래된 한글 필사본은 1464년에 쓴 〈삼왕사어첩·중창권선문〉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2016년 신년특집호 - 48면 발행

A 특집·종단 법어 및 신년사 7·8·9

특집·화쟁, 왜 이 시대 대안인가 10·11

화엄만다라- 문화재 환수 운동 펼치는 장인들 16·17

B 특집·출가, 자유를 향한 길 1·2·3·5

특집·불교와 원숭이, 원숭이 띠 불교 소사 10

특집·원숭이 띠 불자들의 새해 계획 15

자비광명이 충만한 복된 새해 되십시오

현대불교신문 임직원 일동

맑은 마음 밝은 웃음으로 새해를 희망차게 맞이합시다

종정 진제 법원

원로회의의장	밀 운	총무원장	자 승
중앙총회의의장	성 문	교육원장	현 응
호 계 원 장	지 원	포교원장 직무대행	송 목